

전북도, 축산업의 미래는 '더 스마트하게'

규모화·전업화되는 축산업을 기술집약적 스마트 축산 진화 목표... 올해부터 스마트 축산 모델 실증화 사업추진해 활성화 '기대'

전북도가 규모화, 전업화가 진행되는 축산업을 '스마트 축산'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도는 축산환경 개선,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시설의 현대화 및 기존 축산장비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 장비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약 4.417억 원을 투입해

879개소를 현대화 축사로 탈바꿈 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구축에 585억 원을 투입해 314개소 축사의 스마트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아울러, 축종별 스마트 축산 모델 기준 마련 및 실증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축산 활성화에 한 발 더 다

가한다. 도는 스마트 축산 전문조직(TF)을 운영해 '21년까지 양돈, 양계, '22년까지 한우, 젓소, 오리'의 스마트 축산 모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3월에 2022년 양돈분야 스마트 축산 모델화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해 스마트 축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은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 등 꾸러

미 지원을 통해 스마트 축산 표준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축산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품화, 인력부족 대응 및 축산환경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이다"며 "축산농가의 스마트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도에서도 축산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강소특구,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 업무협약

친환경 전기차 공동 개발 전장부품 상생형 양산 등



군산시는 전북도,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군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주)에디슨모터스, (주)코스텍, (주)발산공업 등 18개사가 함께 모여 기업 간 상생 업무협약을 17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공동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전북도,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군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주)에디슨모터스, (주)코스텍, (주)발산공업 등 18개사가 함께 모여 기업 간 상생 업무협약을 17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공동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비즈니스 활성화 촉진·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공동개발 ▲전장부품 상생형 양산, ▲친환경 전기 농기계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공동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분야별로 참여한 기업은 주요 수요처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공동개발에 (주)에디슨모터스 중심 특구내의 10개사, 전장부품 상생형 양산에 (주)코스텍 중심 특구내의 6개사, 친환경 전기 농기계 개발에 (주)발산공업 중심 특구내의 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간 상호 기술 교류 이전 및 기술지원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신규 국책사업의 공동 기획 및 제안, ▲공동 기술개발, ▲공용

장비 활용 및 지원,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철 사업단장은 "이번 기업 간 업무협약은 군산 강소특구 특화분야

인 전기차 중심의 대형수요처를 연계한 혁신사례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생태계 축적으로 혁신적인 강소특구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에 지정된 군산 강소특구는 기술혁신기반인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군산 새만금산업공구와 군산국가산업단지에도 조성되었

으며,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혁신기반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형(모델)이다. /군산·남원동 기자



전북도가 17일 전주YMCA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전북하나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 갔다.

도, 전북하나센터 개소· 본격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전담

전북도가 17일 전주YMCA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전북하나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 갔다. 개소식에는 남북하나재단본부장, 이북5도 전북사무소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상축하메시지, 사업소개,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하나센터는 도내 거주 540여명의 탈북민들에게 지역적응교육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직업교육, 복지, 의료, 아동보육, 청소년 교육 등 지역사회에 적응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보장제도교육, ▲심리정서 안정지원사업, ▲법률지원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인권교육, ▲가족통합, ▲사회적응지원사업 등 다

방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정현 전북하나센터장은 "전북하나센터는 시대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에 맞춰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영상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따뜻한 동지, 전북하나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이 씨앗이고, 전북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잘 도와 통일을 씨앗을 꽃 피우는데 크게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축하와 함께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소식은 신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주YMCA의 운영법인 이점을 축하하는 자리이며, 전주YMCA는 2022년부터 3년간 전북하나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전년도 추진성과 토대 미흡한 부분 개선 협의

전북도가 17일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 주재로 전주시, 완주군, 9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소통 및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전년도 추진성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 등 지역발전계획 5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022년 지역발전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시·완주군, 이전공공기관은 다양한 행사·시책 등을 함께



홍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바탕으로 2022년 지역발전계획을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행해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소방, 코로나19 대응력 보강... 기간제 근로자 64명 모집

전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대응력 보강을 통한 119구급대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64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구급 기간제 근로자는 구급활동 보조 60명, 상황관리보조 4명이다. 응시 자격은 20~40세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자, 관련 면허(자격) 교부 예정자도 면허(자격) 번호를 부여받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며,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을 첨부해 전북소방본부 이메일(tcsc1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접수,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오는 3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도내 소방서 119안센터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구급 상황관리 업무 등 보조 역할을 맡는다. 채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뉴스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중점 추진

일자리 창출·자활사업 지속 발전·전문인력양성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조성

전북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가 2022년 자활사업의 효과성 및 활성화도모를 위해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영역 확대, ▲전문인력양성 등 3대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먼저, 고용 복지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개발, 지속성장 일자리 발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프랜차이즈기업, 사회적경제 영역을 연계해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와 청년, 중장년을 겨냥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지속발전 가능한 자활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인증 및 디자인 개선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 자활 신규사업 발굴 및 규모화,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조 가공사업단의 매출향상을 위한 햇셋 등 각종 인증사업과 컨설팅을 통해 전북형 식품특화사업을 도모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활기업을 발굴해 광역자활기업

육성과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국 자활기업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활인재 육성을 위해 참여자의 자립역량과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종사자의 전문 직무교육과 사례관리 활성화를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세차, 택배, 자원순환 사업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자활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원순환사업에 비중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등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이스팩, 종이집, 플라스틱 등 수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물적, 인적, 공적 지원연계를 통해 지속적이면서 팬데믹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틀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구축 완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추가 확보

전북도가 올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그간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으로 이관, 14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8명, 아동보호전문위원 39명을 배치해 조사공공화를 완료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갑작 미수검 아동 등 위기아동으로 의심되는 1,273명을 3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자 임문교육(80시간~160시간)과, 경력자 보수교육(40시간) 및 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교육(16시간 신설)에 참여해 아동학대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7.4%로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 4.9%보다 높은 수치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지영 관장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아동학대 발생이 많아졌다고

볼 것이 아니다"며 "숨겨져 있던 아동학대 발견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 통계이며, 우리나라의 피해아동발견율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피해아동발견율을 더 높이도록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동인구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4위의 설치율을 달성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내 5개소(군산 익산, 김제, 장수, 부안)를 추가 설치 총 9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아동 치료,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소(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도 전주시 1개소를 추가로 설치예정이다.

김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남원 운봉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설립"

이용호 의원, 윤석열 후보 공약 확정에 '환영'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남원 설립'을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2일째인 지난 16일, 윤석열 후보는 전북 첫 유세에서 전북 8대 공약 발표와 함께,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2,000억원에 달한다. 전북도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유소년, 중고등 스포츠선수단 등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육상, 야구, 테니스, 승마 등을 비롯한

26개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과 재활센터,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비시즌 기간에는 일반 국민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공약은 전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원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설립을 시작으로 호남과 남원·임실·순창의 현안 사업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진심과 노력이 호남 민심에 닿고, 호남의 실질적인 정치변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의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